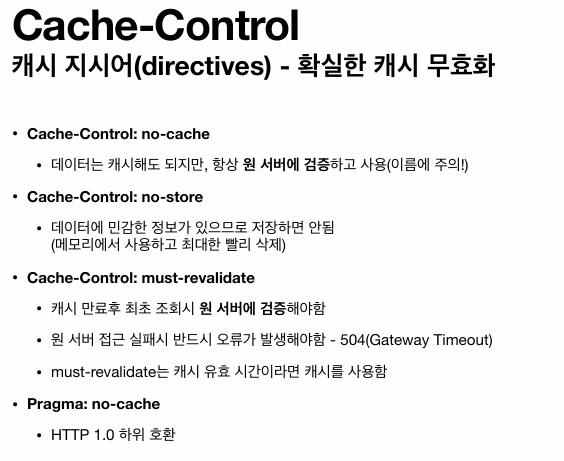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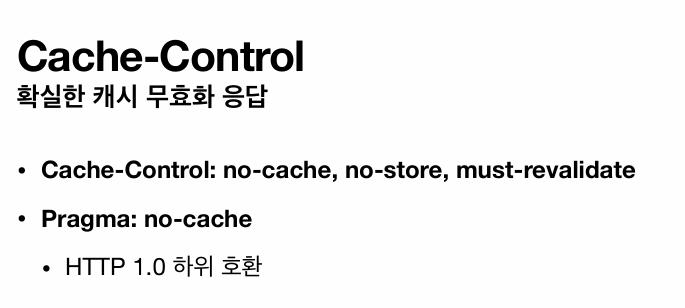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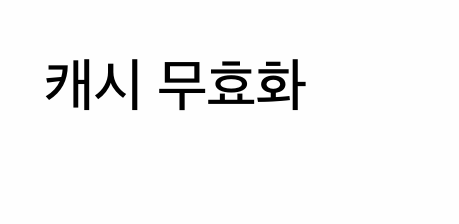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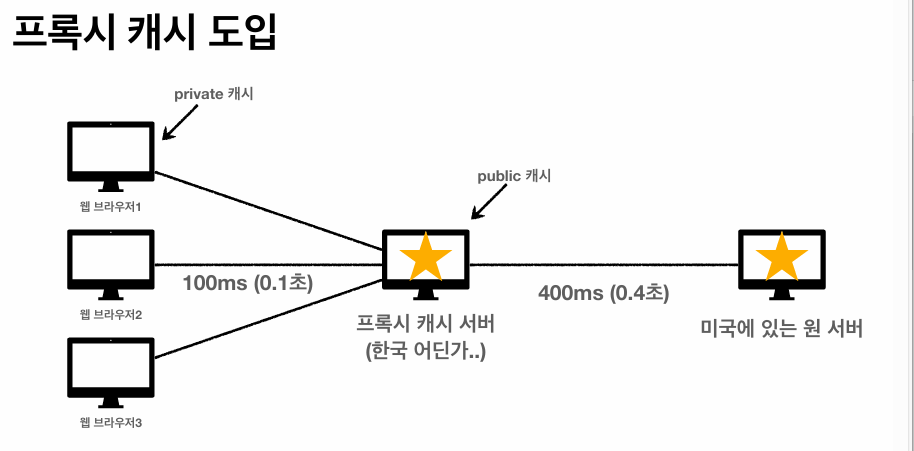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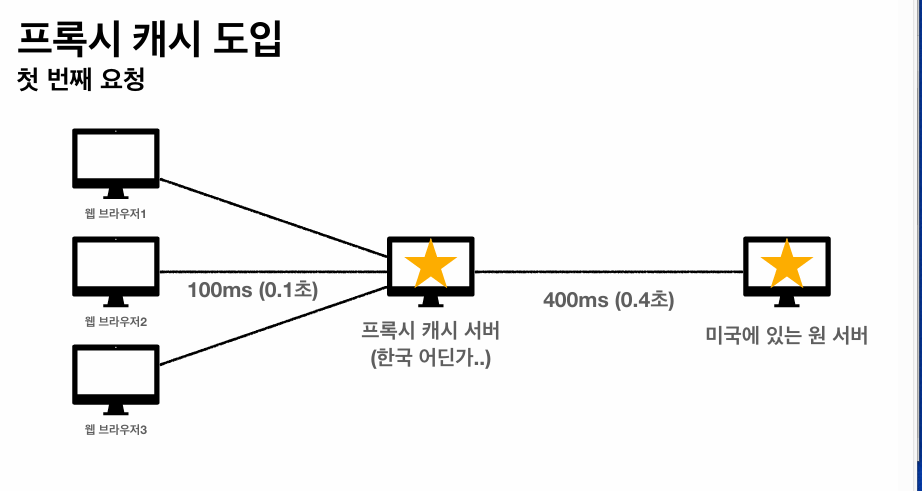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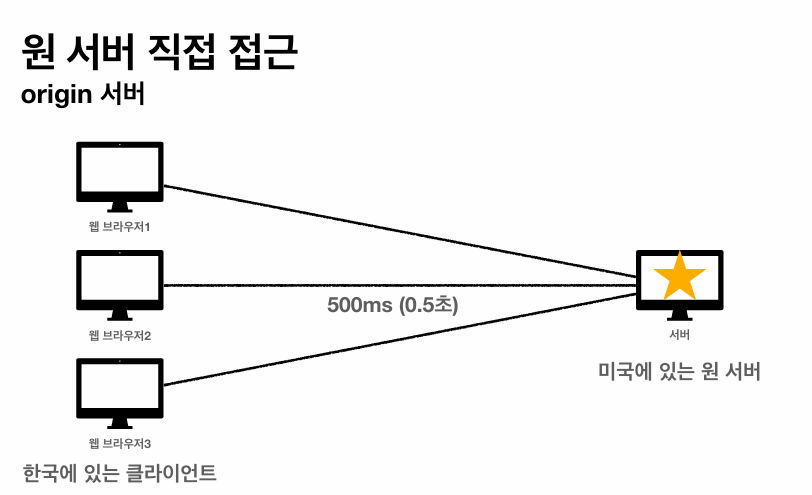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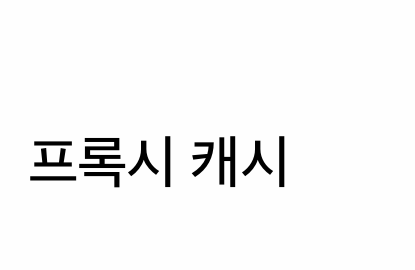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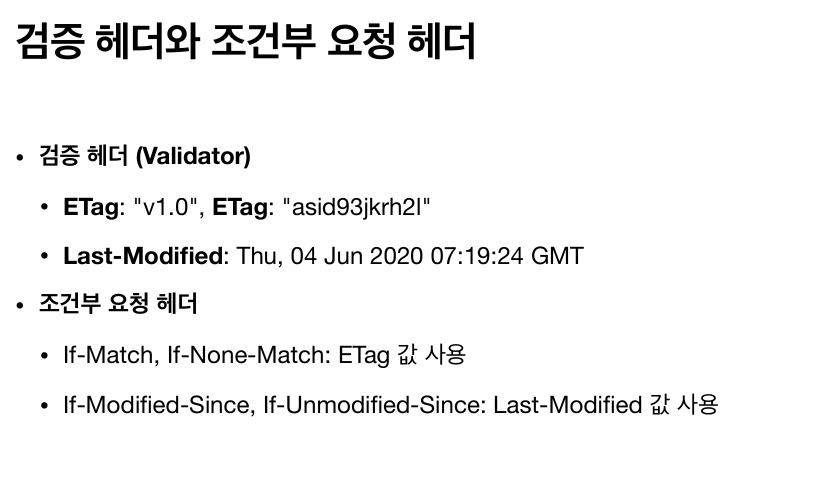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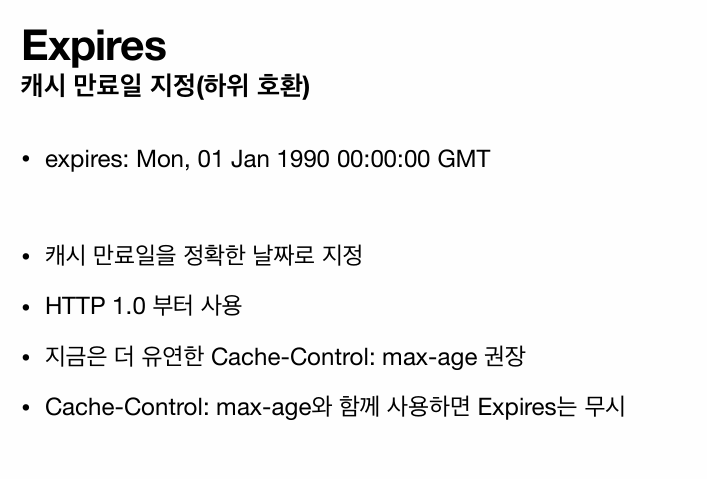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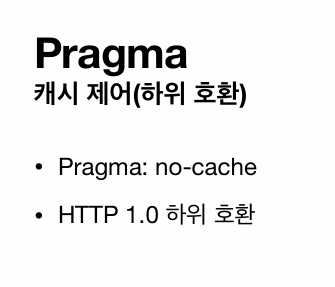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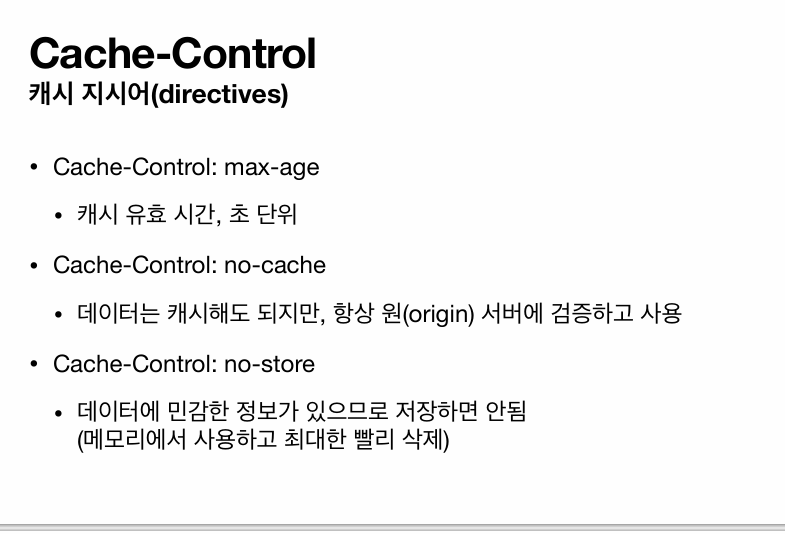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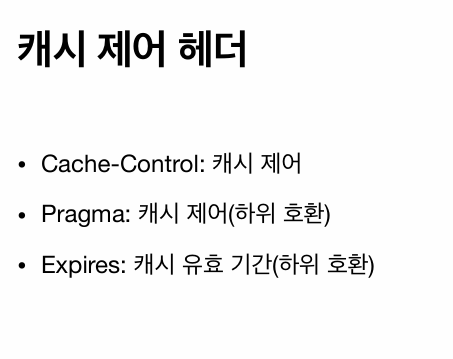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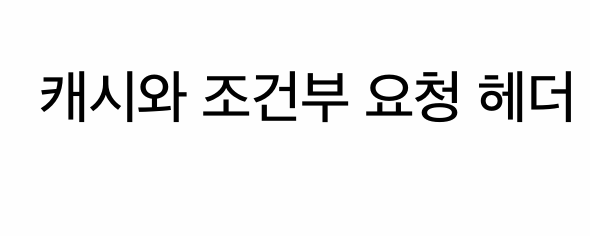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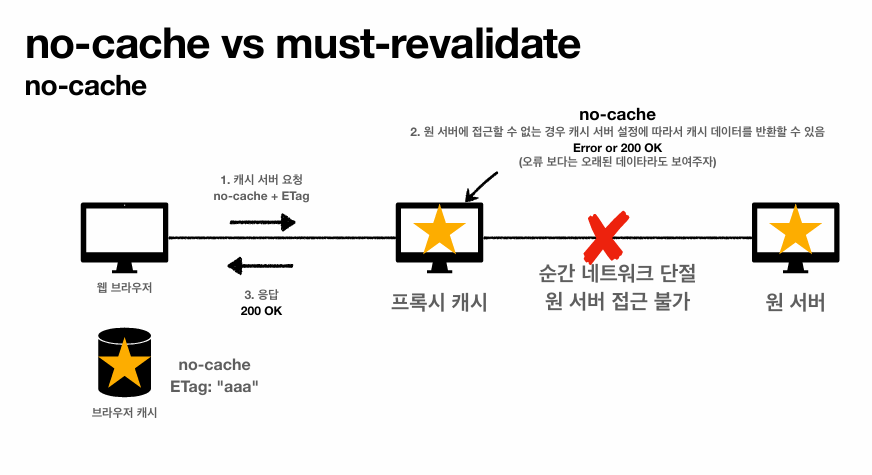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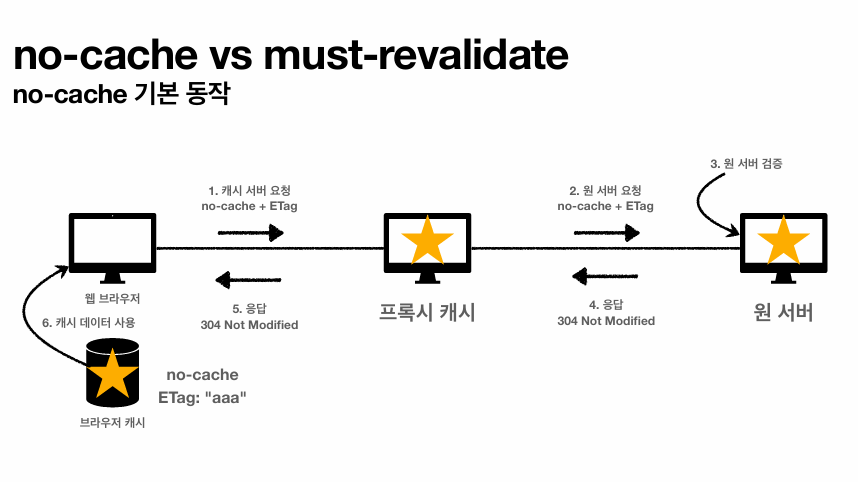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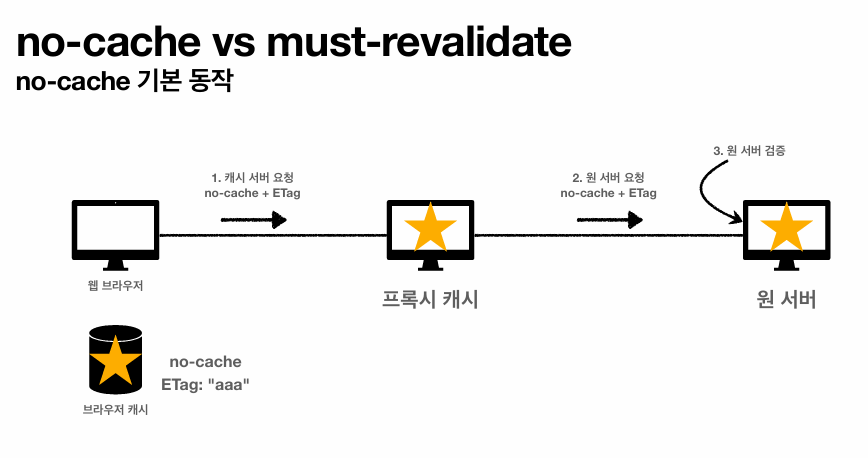


If-modified-since와 같은 헤더는 브라우저가 알아서 만들어줌. Last-modifed헤더를 응답헤더에 같이 넣어서 보낸다면 그 이후부터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if-modified-since 헤더를 포함하여 요청함.

서버쪽에서 lastModifiedTime 정보를 last-modified 헤더에 넣어서 응답하면, 브라우저가 해당 응답을 캐시에 저장해놓은 뒤, 다음 요청 부턴 if-modified-since의 조건부 헤더를 작성해서 보냄. 서버에서는 이 값과 실제 lastModifiedTime 값이랑 비교 후 같으면 304코드를 ,다르면 200코드와 http body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송한다. etag도 위와 동일한 로직으로 동작.



캐시를 완전히 무효화하려면, no-cache, no-store, must-revalidate, pragma - no-cache(옛날 브라우저 지원 목적)를 추가해야한다.



nocache의 경우 프록시서버에서 원서버에 항상 요청을 보내긴 하지만, 프록시 서버에서 원서버와의 통신이 되지 않을 시 프록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내기도 한다. 하지만, 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는 프록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보내면 안되고, 원 서버와 통신이 안될 경우 오류를 발생시켜야한다. -> 이를 위해 must-revalidate 속성을 추가해서 캐시를 무효화해야한다.

